

주님의 회복 - 시온을 건축하는 것

12/26 월

시 48:2
2 우뚝 솟아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인 북편 끝 시온산! 이는 크신 왕의 성이라네.

시 50:2
2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은 빛나신다네.

시 125:1
1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시온산 같아라.

시 9:11
11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. 그분께서 하신 일을 여러 백성 가운데 선포할지니

시 74:2
2 옛적에 주님께서 사신 회중 곧 주님께서 구속하시어 유업의 지파가 되게 하신 주님의 회중과, 주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산을 기억하여 주십시오.

시 87:2
2 여호와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니

렘 4:16
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,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.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.

계 3:12
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.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.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,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,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.

계 21:3
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. “보아라,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,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.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,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.

12/27 화

왕상 8:1
1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인 시온에서 가지고 올라오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,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 집안의 인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 앞에 불러 모았다.

계 14:1
1 또 내가 보니, 어린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는데,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.

사 41:27
27 내가 이전에 시온에게 ‘보아라, 그들을 보아라.’ 하였으니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 주리라.

빌 3:8, 13-14
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,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.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,
13 형제님들,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.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.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,
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꾀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.

계 2:7
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.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.’

계 3:5
5 이기는 이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,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,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.

12/28 수

시 24:7-8
7 성문들아, 머리를 들어라. 오래 건디어 온 문들아! 들렐라.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.
8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? 강하시고 능하신 여호와!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다!

계 3:20
20 보아라, 내가 문밖에 서서, 문을 두드린다.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,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,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.

고전 9:24
24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,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?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붙잡기 위해 달리십시오.

딤후 4:7-8
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,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, 믿음을 지켰습니다.
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,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.

아 5:2-5
2 “나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었답니다. 저 소리! 내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네요.” “문을 열어 주오, 나의 누이, 나의 사랑, 나의 비둘기, 나의 온전한 이여. 내 머리가 이슬에, 내 머리채가 밤이슬에 젖었다오.”
3 “ ‘옷을 이미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을 수 있나요? 발을 이미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힐 수 있나요?’
4 내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그이 손을 들이밀자 내 속부분들이 그이를 간절히 바랐어요.
5 내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 드리려 일어나니 내 손에서는 몰약이, 내 손가락에서는 몰약즙이 문지방 손잡이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.

12/29 목

엡 4:23-24
 23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
 24 새사람,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.

엡 5:18, 25-27
 18 술 취하지 마십시오.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.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.
 25 남편 여러분,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, 아내를 사랑하십시오.
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,
 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,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.

엡 1:22-23
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,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.
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,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.

빌 1:19-21
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,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.
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,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,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.
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,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.

12/30 금

시 84:3-7, 11
 3 오, 만군의 여호와님! 저의 왕, 저의 하나님! 주님의 두 단에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새끼 칠 둥지를 찾았습니다.
 4 주님의 집에 거주하는 이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. 셀라
 5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.

6 바카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들이 그곳을 샘이 되게 하니 이른 비가 정녕 그곳을 복으로 덮습니다.
 7 그들은 힘에 힘을 얻으며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저마다 나아옵니다.
 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 여호와와는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울곧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.

엡 6:11, 13
 11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,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.
 1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. 그것은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, 또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한 후에도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

계 14:1
 1 또 내가 보니, 어린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는데,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.

12/31 토

시 132:13-16
 13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시고 그곳을 자기 처소 삼으시기를 갈망하셨다네.
 14 “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 내가 이곳을 갈망하였으니 나 여기 거하리라.
 15 내가 이곳 양식에 풍성히 복을 주며 이곳 가난한 이들을 떡으로 만족하게 하리라.
 16 내가 이곳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히리니 이곳 신실한 이들이 환호하며 외치리라.

시 134:3
 3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노라.

시 133:1-3
 1 보라,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!
 2 머리 위의 좋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단에 흘러내림 같고,
 3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아라.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라.

1/1 주일

시 27:4
 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.

시 48:2
 2 우뚝 솟아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인 북편 끝 시온산! 이는 크신 왕의 성이라네.

시 50:2
 2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은 빛나신다네.

시 110:2-3, 7
 2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의 지휘봉을 보내시리니 주님은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십시오.
 3 주님의 전쟁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리니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께 새벽의 태에서 나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.
 7 그분은 길가 시내에서 물을 마시시므로 그분의 머리를 드시리라.

사 28:5
 5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분 백성 중 남은 이들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왕관이 되어 주시며

사 60:21
 21 그때 네 백성이 모두 의롭게 되어 땅을 영원히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를 아름답게 하도록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.

사 61:3
 3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재 대신 머리 장식을 슬픔 대신 즐거움의 기름을 칠할 영 대신 찬양의 걸음을 주게 하려 하심이다. 그리하여 그들이 의의 테레빈나무라, 여호와께서 심으신 이들이라 불리게 하여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.

2022. 12. 26 ~ 2022. 12. 31
 단체로 읽을 말씀: *The Economy of God and the Mystery of the Transmission of the Divine Trinity*, 3 장
찬송: 1222 (英) 소리 높여 크게 찬송하여야

The Church in New York City
www.churchinnyc.org